

임실군, 천만관광 실현 총력

심 민 군수, 옥정호 종합관광개발 완성 위해 중앙부처 잇따라 방문... 지원 강력 건의

심 민 임실군수가 천만관광 시대를 열어 갈 섬진강 르네상스의 핵심인 옥정호 종합관광개발의 완성을 위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심 군수는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 보물이자, 전국적인 관광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옥정호 종합관광개발과 관련 아직 못다한 사업의 완성을 위해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해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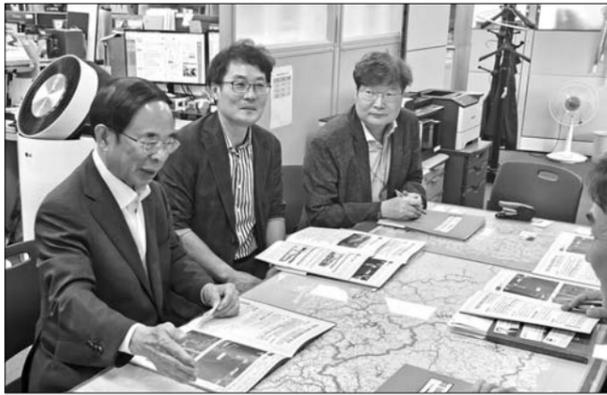
지난 3일 심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옥정호 에코브릿지 조성(180억원)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620억원) △옥정호 자라섬 에코힐링랜드 조성(180억원) 등 옥정호 숙원사업 해결에 부처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계곡공모형 지역관광개발(임실치즈테마파크 142억원)과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190억원)의 관광개발 현안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옥정호는 1965년 대한민국 제호 다목적댐 건설로 생겨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그동안 지역발전엔 큰 걸림돌이 됐으나, 민선 6기 심 군수가 취임한 이후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본격적인 친환경 수변개발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일환으로 준공된 420M 옥정호 출렁다리는 형형색색의 꽃과 자연경관을 갖춘 붕어섬을 연결하여 2022년 10월 개통 이후 1년 6개월 만에 107만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떠올랐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심 군



지난 3일 심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옥정호 숙원사업 해결에 부처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수는 옥정호를 찾는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 옥정호 종합관광개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 직접 설득에 나섰다.

먼저 환경부 하천계획과를 찾아가 심 군수는 "붕어섬 주변 수변데크 4km와 붕어섬 산책로 2km를 연결한 6km의 둘레길을 완성하고, 붕어섬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대비와 붕어섬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 운반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군수는 "옥정호 에코브릿지 조성 사업의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를 찾아 전국 2개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순환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 피해가 심각한 옥정호 순환도로 미개설 구간 6.4km를 포함한 지방도 717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건의했다. 특히, 문체부를 방문한 심 군수는 붕어섬 개발 성공 사례와 연계한 옥정호 자라섬(9만㎡) 개발을 통해 호남권역 명품 수변관광 거점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新光역관광개발(호수가람권) 사업계획 반영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아울러, △세계명견 테마랜드의 적기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3.6억원 반영과 △세계명견 테마랜드의 적기 추진을 위한 계속사업비 40억원 반영도 함께 요청했다. /임실=진홍명 기자



남원시 '메타버스 유랑남원' (사진=남원시청 제공)

메타버스 확장, 남원을 유랑하다

시, '메타버스 유랑남원' 공모 선정... 국비 1억원 확보

남원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XR·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제작 실증 지원 사업'에서 '메타버스 유랑남원'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원의 기록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남원다움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기존의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을 통해 호남권역 명품 수변관광 거점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新光역관광개발(호수가람권) 사업계획 반영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아울러, △세계명견 테마랜드의 적기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3.6억원 반영과 △세계명견 테마랜드의 적기 추진을 위한 계속사업비 40억원 반영도 함께 요청했다. /임실=진홍명 기자

와 함께 남원의 고전을 패러디한 미니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남원의 대표 관광지 광한루원과 남원예촌 인근에 위치한 '남원다움관' (남원시 검멀길 14)은, 남원의 근현대 기록을 수집·보존 및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갖추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남원의 근현대 역사 문화와 기록을 유익한 콘텐츠로 가공하는 남원다움관을 많은 이들이 찾는 곳으로 성장시키고, 공간을 더욱 확장해 더 많은 남원 이야기를 담아 남원 문화의 힘을 끊임없이 전승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나리오 모드를 도입하여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거나 동료 캐릭터

순창, 노인일자리 3000개 달성 눈앞

선도모델 참여 어르신 발대식

순창군이 폐플라스틱(페트병)을 수거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순창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인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하며 공약사업인 노인 일자리 3,000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일 순창군 노인회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장, 신정아 순창군의회 의장 등 내빈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일자리 참여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을 갖는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 참여자들은 공공기관에

모인 폐플라스틱(페트병)을 수거해 필름을 제거하고 세척, 건조 과정을 거친 물론, 재활용(up-cycling)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을 더해 본래보다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인 플레이크(얇은조각)를 만들기 위하여 자원순환기에서 폐플라스틱을 투입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날 17일 순창군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순창군의회, 순창교육지원청,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등 7개 기관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비전플러스 이서영 대표 관촌면에 성금 100만원 기탁

(주)비전플러스 이서영 대표가 최근 관촌면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서영 대표는 배우자인 (주)비전종합건설 양원규 대표와 함께 2018년도부터 꾸준히 관촌면사무소에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명진 관촌면장은 "꾸준히 성금을 기탁해 주신 이서영 대표와 양원규 대표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명 기자

임실군, 군입대하면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임실군이 군에 입대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임실군포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임실군민의 입영 준비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에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지급 대상은 입영(소집) 예정인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임실군민 중 7월 1일 이후 입영자이다.

신청은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5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 연기를 하거나 실제로 입영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은 임실군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군은 35사단과 제6단야창 등에 복무 중인 군 장병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외출하는 장병들을 위한 외출비 6,000원, 이발비 6,000원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외출 장병들을 위한 차량 지원도 관내 운송업체와 함께 6단야창을 시작으로 현재 35사단까지 확대 운행, 평일 외출 장병들의 신속한 이동을 확보해 주고 외출 후 안전한 부대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임실=진홍명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순창군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기존 사업 대상자 포기 및 취소에 따른 것으로, 순창군 동부권(순창읍, 인계, 동계, 적성, 유등, 풍산)을 대상으로 태양광 109가구, 태양열 22가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는 사업신청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이나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군비를 지원해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정부 인센티브가 큰 사업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 6월 우리 쌀 활용 교육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생활과학관에서는 오는 6월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총 4회)로 3시간씩 진행되며 교육생은 쌀 소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내 농업인 및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우리 쌀과 남원의 농특산물인 복숭아, 포도, 파프리카 등을 활용하여 쌀 파운드 케이크, 사브레 브라우니, 찹쌀 갈레트, 찹쌀 타르트를 만드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시간 및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농촌진흥청과 농식품산업 담당자(063-620-8027)에게 확인할 수 있다.

최정인 농촌진흥과장은 "시민들이 관내 농특산물과 함께 쌀을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 요리를 실습해 봄으로써 쌀로 만든 후식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